

제 182 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강연록

제목 맹목과 망각 - 1960 년대 일본영화와 시각의 알레고리

발표자 이영재(성균관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일시 2015 년 4 월 14 일(화) 오후 12:00 ~ 16:00

장소 국제대학원(140 동) 2 층 GL 룸

성균관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이영재 연구원의 세미나가 4 월 14 일 국제대학원 GL 룸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 맹목과 망각 - 1960 년대 일본영화와 시각의 알레고리” 이라는 주제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2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영재 연구원은 영상을 간단히 소개하며 각 시대의 복합적인 형상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설명함으로 강연을 시작하였다. 먼저, 패전과 독립이라는 주제로, 사라진 일본인과 도래할 일본인에 대해서 표현한 구로사와 아키라와 마루야마 마사오를 소개하였다.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상에서는 아침의 천황 방송을 들으러 가는 사람들의 긴장된 표현과 상반되게 방송을 듣고 돌아오는 환희에 찬 표정의 변화를 통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바뀔까라는 당혹감을 느꼈다고 한다. 또한, 마루야마 마사오는 정신의 진공상태를 불러일으킨 패전이라는 경험과 메이지 유신 이후, 작은 섬나라로 전락된 현재를 생각하게끔 한 두 개의 계기라고 하였고 마루야마와 구로사와의 상동성은 그것이 근대 민주주의라는 어사로 표현되든, 휴머니즘이라는 어사로 표현되든 상정해야 할 ‘보편’을 설정한다는 데에 있다.

이어서, 1951 년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과 1952 년도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라쇼몽>을 소개하면서 도래해야 할 과제로서의 ‘보편’과 그 증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를 통해서 일본영화수출에의 확신을 세울 수 있었으며 ‘인간’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과제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라는 대사와 함께, 패전과 구로사와 아키라, 말한다(喋る)와 산다(生きる), 사건, 세 개의 서로 다른 증언, 목격자의 등장, 그리고 버려진 아기를 거둔다는 것을 통해 인간을 믿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는 점을 <라쇼몽>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어서, <산다>에서는 모든 주민은 ‘모든’ 주민인가라는 주제로 과제로서의 보편을 문제제기 삼았던 <라쇼몽>과 달리 그 위에 성립해야 할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라쇼몽>과 <산다> 모두에서 ‘휴머니즘’이 아렌트적 의미에서의 행위(praxis)의 형태로 획득되고 있는 사실은 다시 한 번 우리의 주목을 요한다. "현실이란 본래 한편으로는 주어진 것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하루하루 만들어 저가는 것인데, 보통 ‘현실’이라고 할 때에는 오로지 앞의 계기만이 전면에 나서서 현실의 만들어가는(plastic) 한 측면이 무시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나라(일본)에서는

단적으로 이미 그러한 사실과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라는 언급이 있다.

패전 이후, 1952년 5월 2일, 전국전몰자추도식(全國戰沒者追悼式)에서 "전국민과 함께 세계평화와 우리나라의 진전을 빈" 천황이 연설을 한 뒤, 유족원호법을 시행함으로써 사자(死者)는 기념하고 상처 입은 산 자는 경제의 영역 안에서 봉인하였다고 이영재 연구원은 말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는 오시마 나기사의 <잊혀진 황군>(1963)을 통해서 전(前)일본군한국인 상이군인이라는 존재가 등장하였고 두 개의 망각과의 싸움을 볼 수 있다. 전전 일본에 대한 망각 그리고 그 혼적으로서의 조선-한국에 대한 눈감음으로 이루어진 '단일민족국가' 일본과 냉전 체제 한 가운데에서 바로 그 냉전을 망각하는 '평화국가 일본을 대비 시킨 작품이다. 이어서, 영화<교사형>에서는 아시아적 신체와 국가를 1958년 코마즈가와 사건과 연결시켜 표현하였다. "조선인이란 무엇입니까?", "너는 조선인이고, 나와 여기 있는 분들은 일본인이야. 그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라구." 라는 대사를 통해서 피의 증여라는 측면에서 국가를 보았다.

맹목의 두 맥락을 현저히 보여주는 <자토이치>시리즈는 강력한 맹인이 주인공인 작품으로 60년대 당시,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 그리고 홍콩 등지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었다고 한다. 외팔이 검사, 통칭 '독비도를 휘두르는 홍콩의 액션스타 왕우(王羽)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제적인 관심과 인기를 얻은 <자토이치>는 1971년 22번째 작품으로 『신자토이치 깨버려! 중국검』가 만들어졌고, 그 외에도 일본/홍콩/한국 버전으로 개봉하였다.

자토이치의 유일한 무기이자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 지팡이는, 자위의 검이자 방어의 검이다. " 전후좌우로 휘두르는 이 지팡이가 그리는 원의 범위 안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상대방이 원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좋은 자인지 나쁜 자인지 알 수 없음으로 언제나 싱글거릴 수 있다. 하지만 그 원 내로 들어오는 높은 위험인물로 판단되어 베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카츠 신타로가 말한 것 처럼 '배타적 해역'과 신체가 그리는 '배타적 원'의 상동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맹인의 자토이치를 통해서 시각 공동체를 비판하였는데 특히 어떻게 조화로운 감각은 개시되는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영재 연구원은 맹인 자토이치의 '볼 수 없음'은 따라서 두 가지 맥락에서 모두 파악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형상의 알레고리 속에서 전후 일본의 망각과 관련되는 한편, 시선의 비대칭성을 깨뜨리는 은밀한 전복으로서 또한 읽힐 수 있다. 즉, 이 맹인의 존재는 시각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상대화시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질문 <산다>에 등장하는 청원하는 여성이 나타내는 표상은 무엇인가? 전후 일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반대하는 평화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 전쟁을 반대하는 학생들,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여성들의 활동이 많았기 때문인가?

답변 부인표상, 부인권엔 연관시킴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질문 시각중심주의적 근대화와 국민국가에 대한 측면에서 영화를 비판하고 있다. 영화라는 것 자체가 시각을 재구성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시각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는데... ?

답변 자기 창조성이다. 한 편의 영화는 이미 수많은 이미지들의 축적의 결과이다. 그 무엇도 창조한 것이 아니다. 영화란 전 이미지들의 결합이다라는 뜻이다.

질문 <라시몽> 속 장면에서 아기를 데려다가 키운 것을 보편성으로 연관시켰는데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보편성보다는 오히려 전쟁 후, 전쟁의 유산으로 남겨진 아이를 키우는 오히려 보편적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영재 연구원은 어떠한 해석을 한 것인지?

답변 <라시몽>은 전후 모더니즘 영화의 시작이다. 비가 그친 후, 빛이 나면서 아기가 등장하는 장면이 굳이 왜 필요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고급관객일 수록, 구로사와의 휴머니즘을 눈에 거슬리게 생각할 수 있다. 휴머니즘을 좀더 과해쳐 봐야 한다. 휴머니즘이란 과연 무엇인가로부터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휴머니즘에서 가장 기초 된 것인 근대의 개인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전후 시대에는 왜 이렇게 장애를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는 지?

답변 온전하지 않는 국토

외팔이 vs 자토이치

빈번히 발생하는 장애를 냉전 속의 동아시아와 제한주권론으로 표현한 것이다.

일본의 맹목은 자위대와 평화국가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